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진보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선교회별 월례회로 모입니다. 꼭 참석하시고 가을 운동회를 위한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모입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조율하십시오.

담임목사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님과 함께 사막화 방지림 조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몽골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일(11일)은 전 교인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신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합니다. 특별로 점심을 넉넉히 준비해 오십시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10월 16일(목) 오후 6시 30분 혜화동에 있는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립니다.

최종훈/김금하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시 / 10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청파교회 본당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 몸을 낮추며 한 주간을 사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푸르렀던 나뭇잎 끝에는 살며시 노란색물이 들고 풀잎에는 찬이슬이 맺혀 반짝이는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으나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할 이들은 권력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온 교회들이 국가와 교파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순결한 삶과 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과 피를 내어놓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한완식 김철수 유영남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구명자 김일량 이은옥 김지윤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방민
 김인걸 문영혜 윤영원 이선희 이봉옥 조문규 진정숙 최종원 김훈동
 오지영 맹은선 박지인 김지호 곽상준 최경미 조병무 송양진 장원호
 박성희 김민정 안종일 정현주 권미숙 임영 정경례 홍순구 안홍숙

월정헌금:

김종철 고영애 서정순 왕수명 윤성종 김운정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최철수 곽권희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이소순 김순자 박범희 박미영 이해동 이은자 문홍일
 이현순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방문성 박혜경 김종숙 안준용 박옥식 김대근 최종미
 김지혜 박창운 허정윤 하은주 정두리 송동준 김진경 왕성환 강순배
 박권동 김주경 박지선 박시내 오래된미래 무명6

생일감사헌금 : 이승철

녹색꿈헌금 : 방문성 박혜경 정두리 문영혜 오래된 미래
 (누계: 3,336,000원)

	장혜숙	장혜숙	심심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심심	김윤수
	임정자	임정자	심심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심심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심심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심심	박홍재
	박효선	허정윤	심심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심	김재광
	이순정	김금순	심심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길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심심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심심	김혜관
	이영란	박미영	야외	방극숙
	박혜경	최영혜	심심	최영혜

사라지는 침묵 속에서

꽃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사람의 목숨이 질 때

우리는 깊은 슬픔 중에도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고
 이웃을 용서하는
 겸손을 배우네

노래 부를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배우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진실을 배우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요하고 고요한 찰나에
 더디 깨우치는
 아름다운 우매함이어 (이해인)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계산과 방법을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알량한 계산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며 살지 않겠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기에 앞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가 되겠습니다. 순종함에 있어 작고 큰 일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마음을 담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	10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 / 장성호 형제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한상의 장로	박혜경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중수 박범희 고숙이 박미영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안홍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모험의 미덕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내보냈을 때(눅10:1-24)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여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은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간 여행이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보았던 것과 동일한 선한 능력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에 매우 놀라워하며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눅10:17-24). 예수께서 약속한 이적 중의 이적을 실제로 그분이 베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증임을 알았기에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놀라게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는 세상이 필수적으로 여기는 많은 여행도구들을 제자들에게서 벗겨 내기는 했어도 그들에게서 모든 짐을 벗겨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서 잘못된 짐을 벗겨 냈으며,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긴급한 짐들을 그들에게 지울 수 있었다. 예수께서 지운 짐을 통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할 것은 자기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그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미덕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딪히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준비를 갖추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멋진 모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 여행자의 인물됨을 시험하고 또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 그 모험가의 인물됨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 모험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미덕을 계발하고 그것에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

여행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신앙의 여행에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아는 것이라곤 단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참되고 완전한 교제일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당분간은 날마다 시험을 견뎌 내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약속을 의지해 길을 가게 된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윤리가 왜 그렇게도 철저하게 종말론적인지, 다시 말해 왜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의 선포와 철저하게 묶여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윤리란 텔로스(telos)(그리스어로 종결, 끝, 목적을 뜻한다-옮긴이) 곧 끝과 상관관계를 지닌다. 사람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끝”을 세상의 마지막 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 목표, 결과라는 의미로 보는 것에 따라 세상은 전적으로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자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공리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보기에 옛 세대들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를 회상하는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한동안 국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국가가 나아가갈 방향을 알고 있었다. “선한” 전쟁은 희생과 미덕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자존심에는 안된 일이지만, 우리가 최근에 치른 전쟁은 결코 선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베트남 전쟁은 우리를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이야기, 곧 젊은 세대가 자기 부모들의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남겨 주지 못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고결한 국가라고 자랑해 온 오래된 국가적인 이야기들이 무효가 되어 버렸다.

교회는 자신의 목적과 미덕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속성으로 인해 국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다. 그런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본성 때문에 교회는 깊은 싸움에 휘말린다.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증언과 사랑이라는 복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싸움이라는 하지만 말이다. 불행하게도 폭력과 무력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집어 들 수 있는 무기이며,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자도라 불리는 이 모험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복있는 사람, 2008.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뿌리와 날개를 선물합니다. 뿌리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날개는 독립심과 자유를 주지요.

그러나 뿌리와 날개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다른 이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이들이 그들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고, 치유와 구원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픈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